

이슈 추적

전쟁을 방불케하는 폭력시위, 더 이상 용인 안돼! -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단호히 대처 해야 -

권위주의 시대 과격시위 악몽 떠올라

온 나라가 과격폭력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화가 성숙되었다고 자부하는 이 시대에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폭력시위가 재현되고 있는 것은 역사를 옛날로 되돌리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 농민단체 시위자 사망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임기 2년제를 보장받고 있던 경찰청장까지 그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한 이후 잠시 주춤하던 폭력시위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시위 양상은 흡사 옛 전쟁을 방불케 하듯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투쟁에 나선 농민들과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7만 4,000여명이 전국 13개 시·도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일부는 공공기관 진입 획책, 공공물 파괴, 방화 등으로 온 나라를 불법 폭력시위로 얼룩지게 하고 말았다.

이번 시위는 죽봉과 각목을 들고 시·도청 진입을 시도하는 등 전국적으로 치밀하게 조직화된 양상을 보인 가운데, 전북·충남·북·경남·강원도청 및 광주·대구시청 등 7개 관공서가 시위대들에 의해 유리창이 깨지고 정문과 담장이 부서지고 헐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날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시위대의 과격·폭력성에 섬뜩함을 느꼈으며, 80년대 시위시태의 악몽이 떠올라 견디기가 힘들었다며 이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반응들이었다.

한편 지난 11월 29일에도 한미 FTA 지지 범국민,측은 경찰의 집회불허 방침과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2차 궐기대회를 강행, 전국 곳곳에서 상경투쟁을 벌이려는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점거하여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서울 도심에서는 산발적 기습 시위로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었고, 지난 12월 6일 역시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약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3차 궐기대회를 강행하는 한편 도심 곳곳에서 기습시위를 펼쳐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극심한 교통정체를 야기시켰다.

과격 폭력시위로 경찰 부상자

크게 증가

지난해 3월 - 5월 울산플랜트 노조 집회에서 불법 시위용품의 사용으로 116명의 경찰관이 다친데 이어 10월의 순천 하이스코 노조 집회에서 70여명, 11월 농민대회에서 2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들어서도 5월 평택 미군기지

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 (2001년 673명, 2002년 287명, 2003년 749명, 2004년 621명, 2005년 893명, 2006년 7월말까지 469명)이다.

쇠파이프와 죽창, 화염병과 돌맹이가 난무하는 시위현장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자식들을 보면서 전·의경 부모들이 애끓는 심정으로 평화시위를 호소

을 보면 공권력의 온정적인 처벌이 불법폭력집회시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최근 한미 FTA 집회 등과 관련, 한명숙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불법폭력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이택순 경찰청장도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 『체증을 통해 불법 시위자는 언제든지 처벌된다는 생각을 불러 넣겠다』고 전제하고 『집회를 주도한 단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민, 형사상 손해소송을 추진하는 등 사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진압부대를 더 훈련시키고 장구를 개발해 부상당하는 경찰관이 없도록 하고, 최루액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주시의회는 불법폭력시위를 벌이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코자 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시위는 법테두리 안에서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우리 헌법은 개인이나 단체의 權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이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만 사회적 지지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불법 폭력시위는 시위대 자신들이나 국의 차원에서 결코 이롭지 못하다. 집회시위를 주도하는 자들은 정쟁터를 방불케 하는 후진국적 시위문화로 인해 국가의 대외적 신인도 및 경제의 끝없는 추락, 자유민주주의의 근간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

21세기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문턱에 둔 시점에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시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구대의연한 후진국 수준의 시위문화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평화시위는 최대한 보장되되 불법폭력시위는 법의 이름으로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막을 수 있다.

경우문예회장에 황호항 前 사무총장 - 최근 정기총회 갖고 조직발전 결의 -



신임 집행부들이 함께 했다(왼내: 황호항 회장).

경우문예회가 최근 서울 을지로 3.1빌딩 뷔페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전용찬 회장의 후임에 황호항 운영위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황 회장은 『과도와 등대』 제 6집 발간에 대한 회원들의 협조와 경우회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향후 문화의 시대를 맞아 경우회에서 文化警友가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이와관련 황 회장은 『경우회 조직 홍보 문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신문〉과 연계해 『과도와 등대』誌가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김동호회와도 연대하여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연말에 경우문예회 전 회원을 한

자리에 모아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이 하나로 뭉치는 일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도와 등대〉문학상을 정하여 문학을 하는 경우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겠다』

면서 『이 계획들이 가시화 되기 위해서는 회원 각자의 협조는 물론 경우회의 지속적 지원도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우문예회는 이외에도 고문에 전용찬, 부회장에 이당재·최석산, 운영위원장에 이기진, 자문위원장에 이봉하, 편집위원장에 김광섭, 사무국장에 노중평, 운영위원에 최인철·박돈희 회원을 각각 추대하고 조직발전을 결의했다.

황호항 회장 약력

- 서울 영등포, 의정부시장
- 대통령 비서실 치안비서
- 해양경찰청 경무부장
- 경우회 사무총장

경우장학회 이사회 개최

내년도 예산안 의결 및 당면현안 토의 - 숭실대학교 이호계 총장 「감사의 편지」 보내와 -



경우장학회가 최근 중앙회 사랑방에서 문학동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76차 이사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한편 이용상 경우회 사무총장을 신임 삼임 이사로 추대했다.

이날 문학동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우장학회가 내실있는 운영, 그리고 많은 분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기금이 증액됨으로서 보다

많은 전·현직 경우 자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일지 단결하여 장학회 활성화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경우장학회가 내년부터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그 수혜 대상을 50명선으로 확대기로 한 가운데, 숭실대학교 이호계 총장은 『우리 대학교를 잊지 않고 장학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길 바라며, 장학재단의 취지를 받들어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동량을 배출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채로운 방송컨텐츠로 차별화된 교통정보 제공 - TBN 한국교통방송 DMB방송 개국 1주년 맞아 -



주요 임원들이 기념케익을 절단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 하태신)에서 운영하는 TBN 한국교통방송 DMB방송이 개국 1주년을 맞았다.

TBN 한국교통방송 DMB방송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및 수도권을 가청권으로 개국한 이후 실시간 차별화된 교통정보 서비스를 바탕으로 각종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청취자들에게 생활정보, 음악, 날씨 등 다채롭고 풍부한 방송컨텐츠를 제공해주는 라디오 매체로 발전을 하고 있다.

방송 관계자는 『TBN 한국교통방송 DMB방송은 개국 이래 뉴스전문채널인 YTN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4개의 채널사업 중 Audio-1 채널을 이용하여 청취자들에게 DMB방송의 장점인 이동 중에 보고 들을 수 있는 오디오 방송은 물론 1300여명의 통신원과 시민이 제공하는 교통정보(DLS)와 더불어 서울 및 수도권의 종합교통정보를 청취자가 편리하게 들을 수 있도록 교통전문 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올 가을에 추동계 개편을 통해 청취자의 기호에 맞게 슬라이드쇼

(SLS)를 통한 영상슬라이드를 새롭게 구성해 기상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하는 등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TBN 한국교통방송 DMB방송은 개국 1주년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전문가를 통한 DMB방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대담을 비롯하여 통신원 노래자랑, 연예인의 개국축하 메시지, DMB를 주제로 한 퀴즈 및 각종 참여코너를 통해 청취자와 함께 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규탄대회에 적극 참여 합시다! - 퇴직후 생존권, 당신의 참여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 발전 위원회」를 설치, 「KDI」등과 연금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 내년 초에 국회상정 방침을 세우는 등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퇴직금을 법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고 고용 보험료와 산재 보험료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공무원 복지의 최후보루인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사용자인 국가가 공무원 임용시 20년 이상 국가를 위해 청렴과 성실의무를 다하면 퇴직후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국가의 계약위반인 것입니다.

전·현직 공무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규탄 대회에 재향경우회 회원모두가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권익을 지켜냅시다.

- 일시 : 2006. 12. 9(토) 오후 13:30 ~ 16:30
- 장소 :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경복궁 광화문 앞)

※ 교통편 ◎ 지하철 3호선(경복궁역), 5호선(광화문역)

◎ 버 스 지선버스 : 0015, 1011, 1012, 1020, 7012, 1711, 7018, 7020, 7022, 7023, 종로09, 종로11

간선버스 : 109, 150, 162, 200, 401, 402, 406, 606, 704

대한민국재향경우회